

http://dx.doi.org/10.17703/JCCT.2021.7.2.77

JCCT 2021-5-9

## 간호대학생의 자기자비, 갈등해결전략이 임상실습 적응에 미치는 영향

### The Influence of Self-compassion, Conflict Resolution Strategy on the Adaptation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College Students

장현정\*, 이윤정\*\*

Hyun-Jung Jang\*, Yun Jeong Lee\*\*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 4학년을 대상으로 자기자비정도와 갈등해결전략이 임상실습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여 간호대학생들의 긍정적인 임상실습적응을 위한 교육훈련방안 마련 시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간호대학생 4학년 243명의 자료를 SPSS/WIN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임상실습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한 결과, 임상실습만족도가 높을수록, 자기 스스로 고립되지 않으며, 과잉동일시 하지 않고, 갈등해결전략으로 타협을 사용하고 회피와 지배를 사용하지 않을 때 순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들 변인은 간호대학생들의 임상실습 적응도를 설명하는데 43.3%의 영향력을 나타내었다

**주요어** : 자기자비, 갈등해결전략, 임상실습적응, 간호대학생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plore the effects of self-sufficiency and conflict resolution strategies on clinical practice adaptation for 4th graders in nursing college and provide basic data when preparing education and training measures for positive clinical practice adaptation. The data of 243 4th graders in nursing students were analyzed using the SPSS/WIN 22.0 program. As a result of exploring factors that affect clinical practice adaptation, the higher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the more self-isolated, the less over-identical, and the use of compromise as a conflict resolution strategy and the use of avoidance and domination. These variables were 43.3% influential in explaining the adaptability of nursing students to clinical practice.

**Key words** : Self-compassion, Resolution Strategy, Adaptation of Clinical Practice, Nursing College Students

## 1.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임상실습은 간호대학생이 학교에서 배운 이론을 실제 임상에서 적용 및 관찰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간호 환경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교육과정

이다[1]. 학생들은 이시기를 통해 본격적인 임상현장을 이해하며, 이론과 실무를 이해하고, 본격적으로 임상에 진입하게 된다.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도 학사과정 중 임상실습 1000시간 이상 이수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하여 임상수행능력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도록 할 만큼 중요한 교육과정임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임상실

\*정회원, 가톨릭꽃동네대학교 간호학과 (제1저자)

\*\*정회원, 가톨릭꽃동네대학교 간호학과 (교신저자)

접수일: 2021년 2월 16일, 수정완료일: 2021년 3월 20일

게재확정일: 2021년 4월 4일

Received: February 16, 2021 / Revised: March 20, 2021

Accepted: April 4, 2021

\*Corresponding Author: leeyj@kkot.ac.kr

Dept. of Nursing, Kkottongnae Univ, Korea

습 전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임상현장에 원활하게 적응하도록 위해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지만, 여전히 간호대학생들은 이론과 실무의 괴리를 통해 내면 갈등과 혼란스러움을 경험하며 임상현장의 적응에 어려움을 호소한다[2]. 간호대학생의 실습내용은 실제 근무하는 간호사에 비해 제한적이지만, 실습시 경험하는 간호대학생들의 주관적인 감정은 이론수업에만 노출되었다가 혼란, 혼동, 상실감, 좌절감 등으로 표현된다. 또한 최근 환자 안전과 인권이 강조되는 임상현장의 추세로 인해 간호대학생들은 간접 실습을 하며 임상현장에서 눈치를 보는 등 스트레스를 받으며 실습에 임하고 있다. 변화된 임상현장에서 학생들은 스스로 가치관을 재평가하여 현실에 적응하는 과정을 겪게 될 수 있지만, 일부에서는 왜곡된 가치관형성으로 현실에 부적응하게 되고 갈등을 일으킨다. 갈등은 모든 관계에서 발생하는 필연적이고 보편적인 현상을 서로 다른 배경, 신념, 기대 및 가치관 등에 의해 발생하며, 적대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우호적인 관계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 부정적인 영향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잠재성 또한 지니고 있다[3]. 예측할 수 없는 임상실습 상황에서 발생한 갈등을 간호대학생들이 잘 해결한다면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켜 자아성장을 일으키고, 임상실습의 적응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근래에는, 무엇으로 갈등이 발생했는지 원인을 찾기 보다는, 발생한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 매우 중요한 문제로 되었고, 갈등을 관리하고 처리하는 기술을 갈등해결전략이라고 하였다. 개인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에 떠오르며, 어떠한 해결전략을 취하느냐에 따라 그 관계의 갈등정도나 지속여부가 결정되며, 만약 적절한 갈등해결전략을 취하지 못할 경우, 불쾌한 정서, 단절, 고립 등의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에서의 이론과 임상에서의 괴리로부터 느끼는 갈등,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하고 다루기 위해 개인이 선택하는 방식인 갈등해결전략(conflict resolution strategies)이 주목받게 되었다. 갈등해결전략은 개인의 반응을 긍정, 부정적 방법으로 분류하며, 협력(Integration), 타협(Compromising), 양보(Obliging), 회피(Avoiding), 지배(Dominating)의 다섯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4]. 국내외 선행연구는 남성과 여성 모두 통합과 타협의 협력적 갈등해결전략을 사용할 때 대인관계 만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5] 한편 부적응적인 갈등해결전략은 회피, 위협, 강압과 같은 갈등의 과장된

표현, 우월과 종속의 결쟁 패턴을 포함한다[6]. 상대방으로 하여금 분개, 무력감의 감정을 느끼게 하고 갈등이 증가하여 관계만족을 감소시킨다[6].

자비는 고통스러운 생각과 감정을 오히려 직면하여 그 순간의 고통스러운 정서를 알아차리면서 감정상태에 너무 가깝거나 멀지 않게 적당한 거리를 두고 감정과 생각이 일어나는 그대로 비판단적인 관찰을 하는 마음챙김을 포함하는 개념이다[7]. 자기자비는 자이존중감이 자기에 대한 다방면의 통합적 이해와 수용을 바탕으로 타인과 일체감을 형성하는 것을 강조하며, 국내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부정 사건의 충격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8], 의미있는 관계형성의 경험은 자기자비 수준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9]. 임상실습에서의 예측하지 못한 부정적인 경험은 자기자비를 통해 완화할 수 있고, 자기자비는 외적,내적 갈등을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바람직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다. 그런면에서 간호대학생들이 임상실습에 잘적응하기 위해 자기자비를 하고 갈등해결전략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상실감과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때에 자기를 평가하고 판단하기 보다는 그 경험 자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자신의 슬픔이나 고통을 충분히 느끼고 자기에게 필요한 위로와 애정을 통해 마음의 침착과 평안함을 이룰 수 있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자기자비가 높을수록 현실적 스트레스 및 고통을 완화시키고, 어려움을 잘 극복하였다[10-11]. 임상실습적응은 학생들이 병원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익숙해져가며, 일부는 내적인 갈등 및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첫 임상실습이 향후 간호에 대한 내적인 목표 및 근무지를 결정하는데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추후에 신규간호사가 되었을 때 임상적응을 어떻게 해 나갈 수 있을지 예측이 가능하다. 이에 본 연구는 자기자비정도와 갈등해결전략이 임상실습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여 간호대학생들의 긍정적인 임상실습적응을 위한 교육훈련방안 마련 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자기자비와 갈등해결전략이 임상실습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함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 2) 대상자의 자기자비정도과 갈등해결전략, 임상실습적응을 파악한다.
- 3) 대상자의 자기자비정도, 갈등해결전략, 임상실습적응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4) 대상자의 임상실습적응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탐색한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 4학년을 대상으로 자기자비와 갈등해결전략이 임상실습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실습경험이 있는 간호학과 4학년을 대상으로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협조할 것을 자발적으로 동의한 자이다. 표본수 결정은 G\*power 3.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effect size .25, 유의수준 .50, 검정력 .80으로 산출한 결과 적정 표본 크기의 최소인원은 216명으로 산출되었으나 탈락률을 고려하여 250명 표집하여 최종 243명이 분석되었다.

### 3. 측정도구

#### 1) 자기자비

자기자비는 Self-Compassion Scale(SCS)[12]를 번안 및 타당화 한 한국판 자기자비 척도(K-SCS)를 이용하였다. 총 2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별 내용은 어려움에 처해있을 때 자기 자신에게 얼마나 자주 그렇게 행동하는지에 대하여 5점척도로 구성되었다. 하위변수로 자기친절, 보편적 인간성, 마음챙김, 자기비난, 고립, 과잉동일시의 6요인으로 구성되어있고, 전체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자비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개발시 연구에서 전체 Cronbach's a .92[12], 한국판 선행연구에서[13] Cronbach's a 는 .78-.81, 전체는 .87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는 자기친절 .786, 보편적 인간성 .753, 마음챙김 .683, 자기비난 .818, 고립 .840, 과잉동일시 .728로 전체는 .88이었다.

#### 2) 갈등해결전략

갈등해결전략척도(ROCI-II)를[14]이 번안한 것으로 [15] 사용하였다. 협력, 타협, 양보, 회피, 지배의 5가지

하위변수로 구성되며, 각 5문항씩 총 25문항으로 5점척도로 평정한다. 선행연구의[14] 갈등해결전략 척도의 Cronbach's a는 .72-.87, 전체는 .87로 나타났다.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갈등해결전략을 더 많이 사용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는 협력 .844, 타협 .907, 양보 .827, 회피 .668, 지배 .823, 전체는 .912였다.

#### 3) 임상실습적응

임상실습적응은 간호대학생들이 병동의 환경에 적응하여 임상실습기간 동안 간호대학생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점수로, 이 도구는[16] 임상실습적응에 관련하여 간호대학생들이 가질수 있는 태도, 자세, 인간관계 활동에 중점을두고 개발되었다. 5점 Likert 척도로 1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실습 적응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a는 .86이었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a는 .712로 나타났다.

### 4. 자료수집

본 연구는 일 지역의 대학생들에게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설명하여 이에 동의한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자료의 비밀보장을 약속하였다. 설문지 작성에는 총 15분 정도 소요가 되었으며, 총 250부를 배부하였으나, 최종 적합한 243부만 분석되었다.

###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자기자비정도, 갈등해결전략, 임상실습적응정도는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시행하였고, 자기자비유형과 갈등해결전략에 따른 임상실습적응 간의 관련성은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 하였다. 임상실습적응에 미치는 요인은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 III. 연구결과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23.81±1.54세였고, 남학생이 55명(22.6%), 여학생이 188명(77.4%)였다. 학업성적은 평점3.0이상-3.5미만 84명(34.6%), 평점3.5이상-4.0미만

72(29.6%), 평균 4.0이상 23명(9.5%) 로 B 이상 성적을 가진 학생들이 179명(73.7%)였다. 모두 4학년으로 실습 경험은 5회가 239명(98.4%)였고, 임상실습 만족도는 만족 97명(37.4%), 보통이 121명(49.8%), 불만족하는 학생이 이었고31명(12.8%), 전공만족도는 만족 101명(41.6%), 보통이 135명(55.6%), 불만족하는 학생이 7명(2.9%)이었다<표 1>.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 Subjects' general characteristics (N=243)

Variables	Category	N(%)	M±SD
age			23.81±1.54
Gender	male	55(22.6)	
	female	188(77.4)	
Average score	2.00~ 2.49	2(0.8)	
	2.50~ 2.99	62(25.5)	
	3.00~ 3.49	84(34.6)	
	3.50~ 3.99	72(29.6)	
	4.00~ 4.49	23(9.5)	
practical exercise	4 times	4(1.6)	
	5 times	239(98.4)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Satisfaction	97(37.4)	
	dissatisfaction	121(49.8)	
Major Satisfaction	Satisfaction	101(41.6)	
	dissatisfaction	135(55.6)	
		7(2.9)	

2. 대상자의 자기자비와 갈등해결전략, 임상실습적응 정도

대상자의 자기자비정도와 갈등해결전략, 임상실습적응정도를 살펴보면, 자기자비정도는 85.80±12.04점, 갈등해결전략은 75.24±12.86점, 임상실습적응 정도는 48.94±6.65점으로 나타났다. 각 연구변수의 문항평균을 살펴보면, 대상자의 자기자비 정도의 문항평균은 3.30±0.46점, 갈등해결전략의 문항평균은 3.01±0.51점, 임상실습적응의 문항평균은 3.50±0.47으로 나타나 모든 연구변수가 중간수준 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2>.

표 2. 대상자의 자기자비와 갈등해결전략, 임상실습적응 정도  
Table 2. Self-Compassion, Conflict Resolution Strategies and Clinical practice adaptation of subjects (N=243)

Variables	Category	item	M±SD	item M±SD
Self-Compassion		26	85.80±12.04	3.30±0.46
	Self-kindness	5	15.03±3.64	3.01±0.73
	Common-hum anity	4	12.63±2.96	3.16±0.74
	Mindfulness	4	12.86±2.83	3.22±0.71

Conflict Resolution Strategies	self-judge	5	17.81±4.10	3.56±0.82
	isolation	4	14.58±3.55	3.65±0.89
	over-identification	4	13.77±3.38	3.44±0.85
		25	75.24±12.86	3.01±0.51
	integrating	6	16.84±3.52	3.37±0.70
	compromising	5	17.87±3.94	3.57±0.79
	obliging	5	16.94±3.63	3.39±0.73
	avoiding	5	15.09±3.28	3.02±0.66
	dominating	5	12.03±3.89	2.41±0.78
<b>Adaptation on Clinical Practice</b>		14	48.94±6.65	3.50±0.47

3. 대상자의 자기자비, 갈등해결전략, 임상실습적응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자기자비, 갈등해결전략, 임상실습적응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하위변수별로 살펴볼 때, 임상실습적응과 자기자비 중 자기친절하며(r=.186, p<.01), 마음챙김하고(r=.192, p<.01), 자기비난하지 않고(r=.394, p<.01), 고립되지 않으며(r=.377, p<.01), 과잉동일시 않을 경우(r=.412, p<.01)이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갈등해결전략 중 협력(r=.181, p<.01), 타협(r=.348, p<.01), 양보(r=.397, p<.01) 하며, 회피하지 않을 때 (r=-.169, p<.01)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표 3>.

4.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적응에 미치는 영향요인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적응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련변수를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의 가정을 검정한 결과, 모든 조건을 충족하였다. 자기상관에 대한 Dubin-Watson 값은 2.081로 2에 근접하여 독립성을 보였다. Dubin-Watson 값은 2.081로 2에 근접하여 독립 VIF 값은 10미만으로 공선성 통계량에 문제가 없었다. 일반적 특성 중 임상실습만족도가 높을수록(β=-.276, p<.001), 자기자비의 고립되지 않으며(β=-.271, p<.01) 과, 과잉동일시하지 않고(β=.238, p<.05) 갈등해결전략의 타협(β=.434, p<.01)하며, 회피(β=-.162, p<.05) 및 지배하지 않을 때 (β=-.137, p<.05) 임상실습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인은 간호대학생들의 임상실습 적응도를 설명하는데 43.3%의 영향력을 나타내었다<표 4>.

표 3. 대상자의 자기자비, 갈등해결전략, 임상실습적응의 상관관계

Table 3. Correlation adjustment of his mercy and conflict resolution strategy, clinical practice (N=243)

	a	b	c	d	e	f	g	h	i	j	k	l
a=Self-kindness	1											
b=Common-humanity	.613**	1										
c=Mindfulness	.781**	.653**	1									
d=self-judge	.086	-.113	-.015	1								
e=isolation	.140*	-.113	.114	.709**	1							
f=over-identification	.233**	-.042	.141*	.763**	.755**	1						
g=integrating	.224**	.218**	.406**	.201**	.376**	.205**	1					
h=compromising	.287**	.284**	.474**	.321**	.437**	.365**	.876**	1				
i=obliging	.272**	.296**	.367**	.133*	.072	.019	.704**	.765**	1			
j=avoiding	.073	.235**	.142*	-.284**	-.337**	-.382**	.348**	.332**	.578**	1		
k=dominating	.006	-.053	-.014	-.242**	-.263**	-.176**	.243**	.075	.145*	.350**	1	
l=Adaptation on Clinical Practice	.186**	.009	.192**	.394**	.377**	.412**	.181**	.348**	.397**	-.169**	-.113	1

\*p<.05 \*\*p<.01 \*\*\*p<.001

표 4.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적응에 미치는 영향요인

Table 4...Factors Influencing Clinical Practice Adaptation(N=243)

Variables	B	SE	β	t	
Constant	33.347	3.570		9.340***	
general characteristics	Major Satisfaction	1.371	.722	.112	1.898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2.761	.572	.276	4.826***
Self-Compassion	Self-kindness	.254	.166	.139	1.529
	Common-humanity	-.315	.164	-.140	-1.918
	Mindfulness	-.049	.233	-.021	-.209
	self-judge	.081	.147	.050	.553
	isolation	-.509	.194	-.271	-2.618**
Conflict Resolution Strategies	over-identification	.469	.187	.238	2.509*
	integrating	.276	.233	.146	1.235
	compromising	.733	.231	.434	3.167**
	obliging	-.210	.184	-.114	-1.140
	avoiding	-.328	.151	-.162	-2.174*
dominating	-.235	.106	-.137	-2.221*	
F		13.469**	R <sup>2</sup> .433		

\*p<.05 \*\*p<.01 \*\*\*p<.001

며, 일반 여자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8]. 간호대학생들에게 자기자비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난 이유는 임상실습을 나가기 전 임상환경과 유사한 교내실습에서의 많은 연습과정을 통하여 내적 성장이 이루어져 높은 것으로 생각되며 [19], 자기자비가 간호대학생들에게 중요한 이유는, 임상실습 중 예상치 못한 부정적인 경험을 자기자비 통해 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간호학과 4학년들은 이론수업을 마치고 실무에서 간호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임상실습을 시작하지만, 현실에서는 수행할 수 있는 것보다 관찰해야만 하는 것이 더 많으며, 그럴때마다 실패와 부적절감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자기자비는 그 경험 자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자신에게 필요한 위로와 애정을 통해 학생간호사에서 간호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자기자비 수준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갈등해결전략 정도는 75.24±12.86점으로 갈등해결전략을 타협(3.57±0.79), 양보(3.39±0.73), 협력(3.37±0.70), 회피(3.02±0.66), 지배(2.41±0.78)순으로 사용하였다. 간호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갈등해결전략과 임상실습적응간의 연구가 없어 유사한 집단간 차이와 정도를 비교분석하기 어려워, 향후 추가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는 타협, 협력, 양보 전략이 대학생활적응에 유의한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며[20],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타협과 협력전략은 긍정적 갈등해결전략으로 자신의 이익과 타인의 이익을 모두 고려할 수 있으며, 갈등이 일어났을 때 가장

#### IV. 논 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 4학년을 대상으로 자기자비 정도와 갈등해결전략이 임상실습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여 간호대학생들의 긍정적인 임상실습적응을 위한 교육훈련방안 마련 시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들의 자기자비 정도는 85.80±12.04점으로 간호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선행연구[17] 87.54±12.48점과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으

적절하게 대처하는 전략이라고 하였다. 양보전략은 긍정적 갈등해결전략이나 자기정서에 대한 인식 실패나 타인 정서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일 때 높게 나오며[20], 자신의 욕구를 포기하고 타인의 욕구에 맞추어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자신의 바람이 무시되는 상황이 빈번해질 경우, 부정적인 정서를 유발하여 적응을 어렵게 할 수 있다. 양보가 미덕인 사회분위기에서는 자신의 욕구를 낮추고 수동적으로 따르는 것이 적합한 전략으로 보일 수 있지만, 조직안에서 개인의 적응을 원활하게 하기해서는 나의 욕구에 상대방의 욕구를 낮춰 맞춰가는 타협이나 협력 전략이 긍정적인 적응과정에 더 필요할 것으로 제안되며, 학생들 지도시에도 협력과 타협을 갈등해결전략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교육되어야 할 부분이다.

임상실습적응정도는  $3.50 \pm 0.47$ 점으로 중간정도의 적응도를 보이며, 선행연구의 임상실습의 경험이 있는 간호대학생 임상실습적응정도[21]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4학년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대상자들보다 임상실습 횟수가 많아 비례적으로 임상실습적응정도도 조금 높게 나타났을 것으로 생각되며,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적응을 위해서는 실습 경험을 고려하고, 기본적으로 실습 적응도가 낮은 학생들을 위한 관리나 대처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자기자비를 키우고, 긍정적인 갈등해결 전략 중 타협과 협력을 대처방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할 것이다.

상관관계 분석에서 임상실습 적응은 자기자비와 갈등해결전략의 하위변인들과 대체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며, 자기자비의 과잉동일시 적을 때가 가장 큰 상관을 나타냈고 갈등해결전략의 회피만 부적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자기자비의 보편적 인간성, 갈등해결전략의 지배와의 상관은 유의하지 않았다. 국내의 자기자비와 임상실습적응 관계를 파악한 선행연구가 없어서 직접비교는 어렵지만, 자기자비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비판이 적어지고, 안녕감과 사회적 친밀감이 높아진다고 한 연구결과를 지지하며[22] 이로써, 낯설고 어색한 상황에서 고통스런 생각이나 부정적인 감정을 과잉 해석하지 않고, 그 순간의 있는 그대로 경험을 알아차림으로써 균형 있게 관찰하고 자각하며, 피하지 않고, 자신의 실패나 약점을 용서할 때 간호대학생들은 긍정적인 임상실습 적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임상실습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한 결과,

임상실습만족도가 높을수록, 자기 스스로 고립되지 않으며, 과잉동일시 하지 않고, 갈등해결전략으로 타협을 사용하고 회피와 지배를 사용하지 않을 때 순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는 임상실습 적응을 위해서 간호대학생 스스로에게 자신에 대한 이해와 통찰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임상실습에 만족할 수 있도록 오리엔테이션, 실습가이드 제공, 시뮬레이션 활용, 교수자의 역할 등 학생들이 낯선환경에서 실질적인 도움으로 받을 수 있는 실제적인 사전 교내실습 및 교육도 함께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 V. 결 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 4학년의 자기자비와 갈등해결 전략이 임상실습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로, 간호대학생들의 긍정적인 임상실습적응을 위한 교육훈련방안 마련 시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해 시도 되었다.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적응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일반적 특성 중 임상실습만족도가 높을수록( $\beta = -.276, p < .001$ ), 자기자비의 고립되지 않으며( $\beta = -.271, p < .01$ ) 과, 과잉동일시하지 않고( $\beta = .238, p < .05$ ) 갈등해결전략의 타협( $\beta = .434, p < .01$ )하며, 회피( $\beta = -.162, p < .05$ ) 및 지배하지 않을 때 ( $\beta = -.137, p < .05$ ) 임상실습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인은 간호대학생들의 임상실습 적응도를 설명하는데 43.3%의 영향력을 나타내었다. 이는 임상실습 적응을 위해서 간호대학생 스스로에게 자신에 대한 이해와 통찰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임상실습에 만족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절차와 철저한 사전 준비가 임상실습적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의 긍정적인 임상실습적응을 위한 교육훈련방안 마련 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을 기대하며,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자기자비와 갈등해결 전략에 반복연구를 제안한다.

## References

- [1] J. J. Lee, C. L. Clarke & M. N. Carson. (2018). Nursing students' learning dynamics and influencing factors in clinical contexts. Nurse

- Education in Practice, 29,103-109.  
[DOI : 10.1016/j.nepr.2017.12.003](https://doi.org/10.1016/j.nepr.2017.12.003).
- [2] E. K. Byun.& H. J. Yang. Effects of Ego Resilienc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on Mental Health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6(4), 85-93, 2020.  
[DOI http://dx.doi.org/10.17703/JCCT.2020.6.4.85](https://doi.org/10.17703/JCCT.2020.6.4.85)
- [3] Kelly, H. H. (1979). *Personal Relationships*. Erlbaum: Hillsdale, NJ.
- [4] Rahim, M. A. (1983). A measure of style of handling interpersonal conflict.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26 , 368-376.
- [5] Bang CA, Shin HC. Self-Compassion and Relationship Satisfaction in Unmarried Couples: The Mediating Effects of Adaptive Conflict Resolution Strategies Applied by the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Psychological Type & Human Development*. 17(1), 59-80. 2016.
- [6] Greeff, A. P., & de Bruyne, T. (2000). Conflict management style and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Sex and Marital Therapy*, 26, 321-34.
- [7] Neff, K. D. (2003b). Self-compassion: An alternative conceptualization of a healthy attitude toward one self. *Self and Identity*, 2, 85-102.
- [8] Park SR, Lee HJ.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4(4), 877-907. 2015.
- [9] Kim KH, Lee HK Positive Emotion on Interpersonal Competence: The Exploration of path model among Experiential Avoidance, Self-Compassion, and Cognitive Empathy.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6(6), 83-107.2015.  
[DOI : 10.15703/kjc.16.6.201512.83](https://doi.org/10.15703/kjc.16.6.201512.83)
- [10] Lee WK, Bang HJ. The relationship among stress of adult women, mindfulness, self-compassion, psychological well-being and psychological symptoms.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1(4), 127-146. 2008.
- [11] Cho YR. The Effects of Self-Compassion, Life Stress, and Decentering on Psychological Health: A Mediated Moderation Mod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0(3), 767-787. 2011.
- [12] Neff, K. D. (2003a).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scale to measure self-compassion. *Self and Identity*, 2(3), 223-250.
- [13] Kim KE, Yi GD, Cho YR, Chai SH, Lee WK . The validation study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Self-Compassion Scale.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3(4), 1023-1044. 2008.
- [14] Rahim, M. A. (1983). A measure of styles of handling interpersonal conflict.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26(2), 368-376.
- [15] Hong, J. (2006). Conflict management in an age of globalization: A comparison of intracultural and intercultural conflict management strategies between Koreans and U. S. Americans. *Speech & Communication*, 6, 168-201.
- [16] Yi YJ.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the e-learning orientation program for nursing student's adapting to clinical practicum,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Adult Nursing*, 19(4), 593-602, 2007.
- [17] Jeong KH, Lee JO, Lee HR, Jang JH, Lee HJ, Kim MJ(2020). The Effect of Self-esteem and Self-compassion on Cadet Life Adjustment and Mental Health in Korea Armed Forces Nursing Academy Cadets, *Journal of military nursing research*. 38(2), 17-27, 2020.  
[DOI : 10.31148/kjmnr.2020.38.2.18](https://doi.org/10.31148/kjmnr.2020.38.2.18)
- [18] Park HR. Effect of female college student's self-compassion, depression and anxiety on eating attitude. [master's thesis] Seoul: Myeong Ji University; 2014. p. 1-89.
- [19] Chae WY & Jeong JR. The Mediating Effects of Emotional Support and Self-compassion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Loneliness Caused by Interpersonal Stress Events and Post-adversity Growth.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19(6), 55-72, 2018.  
[DOI : 10.15703/kjc.19.6.201812.55](https://doi.org/10.15703/kjc.19.6.201812.55)
- [20] Jeong GC, Chun YS, Park HS. Influence of Conflict Resolution Strategies on Subjective Well-being in College Students: Moderating Effect of Mentalization Mediated by Adaptation to College Life. *Jour. of KoCon.a*, 20(8), 138-151, 2020.  
[DOI : 10.5392/JKCA.2020.20.08.138](https://doi.org/10.5392/JKCA.2020.20.08.138)
- [21] Back KH, Cho MO. Effect of Grit and Resilience on Clinical Practice Adaptation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8(6), 363-371. 2020.  
[DOI : 10.14400/JDC.2020.18.6.363](https://doi.org/10.14400/JDC.2020.18.6.363)
- [22] J.Y.Lee. & S.A.Park. Nursing students' and instructors' perception of simulation-based learning.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8(1). 44-55. 2020.  
[DOI https://doi.org/10.17703/IJACT.2020.8.1.44](https://doi.org/10.17703/IJACT.2020.8.1.44)